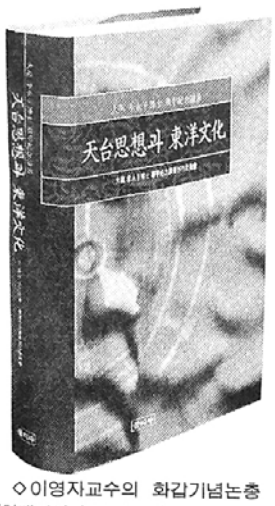
이영자 교수 화갑 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 발간



◇이영자교수의 화갑기념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교학자이자 천태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이영자교수(61)가 화갑기념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불지사 刊)를 발간했다.

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는 '천태사상과 역사' '동양문화와 종교' '불교와 문화' 등 세 주제로 나눠 모두 40편의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천태사상과 역사'에서는 〈천태사상과 현대사회(이영자)〉 〈천태의 사선론(최기표)〉 〈중국불교의 수용과 변용(폴 스완슨)〉 〈중국북쪽 교판론에 대한 천태의 비판과 재수용(이병욱)〉 등 13편의 논문을 통해 환경파괴와 종교갈등 등의 해결방안을 천태사상의 이해속에서 추론해 내고, 천태사상을 통해 한국불교와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불교사상에서 본 생명윤리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이영자)〉 〈원효와 칼 야스퍼스의 종교철학(신옥희)〉 〈20세기 초반에 북미대륙의 불교의 발전(이길용)〉 등 5편의 논문을 담고 있는 '동양문화와 종교'에서는 불교가 동양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다.

또 '불교와 문화'에서는 〈고대 인도의 여성관(곽만연)〉 〈경허의 미륵사상연구(김경집)〉 〈불교수행의 근본(김용환)〉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특징적 가르침(김인덕)〉 〈고려왕실 선대의 불교신앙(양은용)〉 등 21편의 논문을 통해 불교가 한국의 문화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시대의 사고와 논리체계에 맞는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자교수는 이번 화갑기념논총 발간과 함께 선수행 입문서 〈초보자를 위한 선〉(민족사 刊)도 함께 펴냈다.

60년 동국대에 입학, 불교학과 인연을 맺은 이교수는 6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불교문화연구원 조교를 거쳐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에 유학해 82년 〈한국천태사상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까지 한국천태사상 연구에만 매진해 왔다.

이후 〈천태사교의〉(중앙일보사 83년), 〈한국천태사상의 전개〉(민족사 88년) 등을 펴내 천태사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일반대중에게 전파해 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 40편 수록 한국불교 방향제시
국내 첫 여성불교학자 학문 37년 '축하'

◇지난달 26일 엠베서더호텔 출판기념법회에서 이영자교수(왼쪽)는 제자들로부터 논총을 봉정받았다.

이은자 기자

'석가모니불 500대원' 펴낸 학림스님

"부처님오신 뜻·원력의미 알리려고 비화경 정리"

"원력이 없는 신행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반드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500대원을 정리한 책 〈석가모니불 500대원〉(悲華經)을 펴낸 학림스님(예천포교원장)은 원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한다.

〈석가모니불 500대원〉(운주사 刊)은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왜 오셨나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어 신행생활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몇년전 어린이법회에서 비롯됐다.

"한 아이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우셨으며,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성불하셨나'고 물었을 때 탁! 말문이 막혔지요"

그때 부처님의 500대원도 제대로 모르면서 포교당을 시작했던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는 스님은 즉시 500대원이 무엇인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막막했다. 많은 경전 중에서 현겁 사바세계 오탁악세에서 성불하신 석가모니불의 전생 500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비화경〉을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 그리고 신수대장경 등에서 찾았다. 원(願) 하나하나를 정리해 1번부터 500번까지 번호를 차례로 붙이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여러 학자들에게 고증을 부탁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스님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던중에 문득 6바라밀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시도했더니 500대원이 술술 정리가 되더군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 가능했습니다"

500대원은 인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실존인물로서의 부처님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스님의 책을 참고로 특집(현대불교 제127호 24~25면 참조)을 마련해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경남 예천에서 어린이법회와 학생법회를 지도해 오고 있는 학림스님은 앞으로도 불교의 생활화를 위한 쉬운 불서를 계속 펴 내겠다는 원력을 밝힌다. 〈은〉

화제의 책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 원혜 지음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 포교부장 원혜 스님이 평소 느끼고 보아온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펴낸 불교포교서가 바로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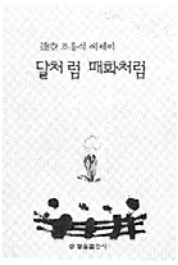
"불교가 사회와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포교다. 포교는 단순히 불자수를 늘인다거나 교리지식을 높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는 스님의 평소 소신과 포교에 대한 열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래 6천원〉

화제의 책

내 마음안에 있는 달 보는 방법은

달처럼 매화처럼 조홍식 지음



〈달처럼 매화처럼〉은 감각적인 삶에 울고 웃으며 우왕좌왕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불교에세이다.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본래 우리 안에 있는 달을 볼 것을 기원하는 달공 조홍식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불일회 회장이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선생의 희수(喜壽)를 맞아 그동안 각 언론에 발표했던 글을 모아 놓았다. 일생을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선지식으로서의 선생의 면모가 달처럼 매화처럼 아름다운 감동을 안겨준다.

〈불일출판사 7천원〉

화제의 책

"고미술 한점 한점 곁에서 보는듯"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이원복 지음

기존의 문화기행서들이 유적지를 돌며 주마간산 식으로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고미술 한점한점을 실제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묘미가 일품인 책. 우리 전통문화재의 명품을 통한 미의 체험이 이 책의 일관적인 주제다. 제1부 아름다움과의 만남, 제2부 옛사람의 멋과 향기, 제3부 박물관 뜨락에서 등 총 109편의 글은 정통 비평서의 성격을 띠면서 한편으론 대중적 교양서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미의 산책을 통한 옛사람의 멋과 생활철학이 문장 곳곳에 배어있을 만큼 고미술을 대하는 글솜씨가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20년간 근무해온 이원복씨가 집필했다.

〈효형출판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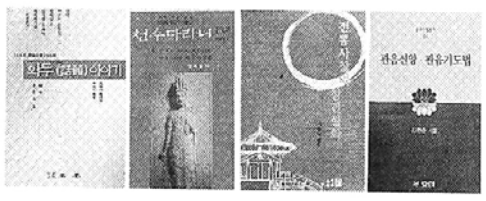
불교 동시집 '아가에게 엄마에게'

◇박용열씨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을 불교적 시각에서 펼쳐낸 유아용 동시동요집 〈아가에게 엄마에게〉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동시작가 박용열씨가 손주, 며느리에게 주는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깨우침과 용기를 일깨워 준다.

박씨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아이 사랑하는 법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심으로 바라보는 자연과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시집에서 '부처님과 아기' '부처님 혼자서 절을 지켜요' 등의 시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삶과 꿈 비매품〉

새로나온 책



▲화두이야기=선이란 본래의 성품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명에서 벗어나 자기 부처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밝고 맑게 살다간 100대 선사들의 말씀에 담겨있는 가르침의 요지를 현재의 생활과 접목, 이치를 쉽게 설명하여 나의 실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한다. 〈삼양 7천원〉

▲천수다라니공덕과 의미=인도철학과 범어학을 전공한 철학박사 전재성 교수가 천수다라니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화현과 심오한 진리의 참뜻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현재 잘못 표기되어 있는 천수다라니를 올바른 표기법에 의해 바로잡아, 불자들이 범어 원음에 가깝게 외울 수 있게 했다.

〈이바지 4천5백원〉

▲전통사찰의 창건설화=우리의 전통사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야기를 묶었다. 짧은 이야기에서 부터 긴 이야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찰과 연관되지 못한 이야기를 비롯, 명산고찰의 내력과 고승들의 행보까지 짚어볼 수 있다.

〈창 6천8백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우리나라 불자의 60%이상이 관세음보살을 신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불자들 가운데 관음신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는 이는 그리 많지가 않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분인지, 그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은 무엇인지, 관음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일러준다.

〈효림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2	기도	일 타	효 림
3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4	한국사찰 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6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 현 종	들 녘
7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8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9	한국사찰의 주련2	권 영 한	전원문화사
10	불교대전	이 원 섭	현 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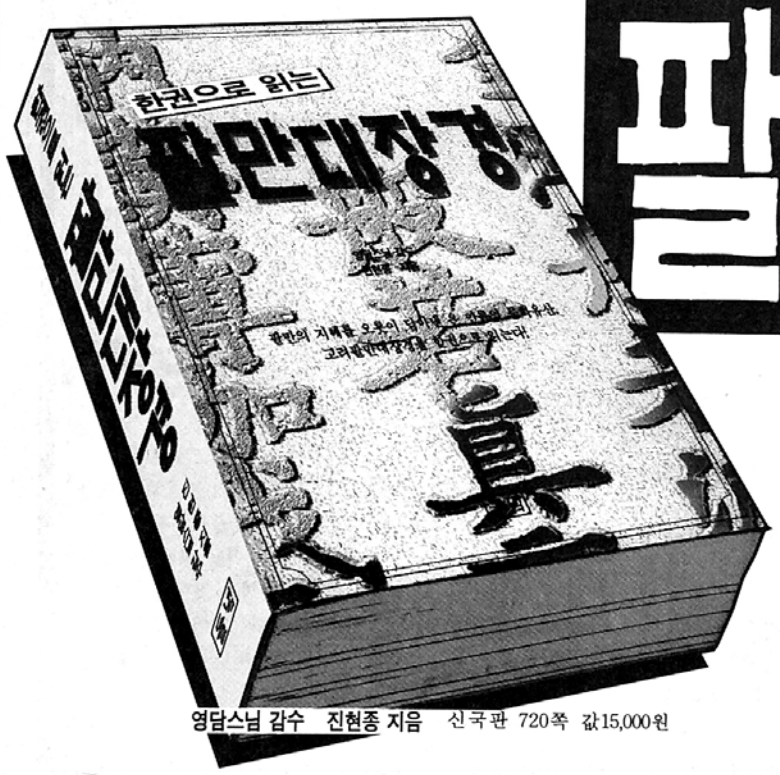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들녘 TEL:337-0296 FAX: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들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뜨거운 호국의 염원으로 빚어냈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흠결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오묘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듬뿍 안겨줄 것이다.

영담스님 감수 진현종 지음 신국판 720쪽 값15,000원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낱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입문서다. 각 왕통의 가계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4쪽 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짙은 안개에 가려 있다. 외세의 힘을 빌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값 10,000 원